

다산포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번 새해가 벌써 세 번째이다. 코로나19라는 괴질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두 발이 쑥 빠진 채, 사람끼리 주고받는 의례적 인정도 카톡이나 문자, 잘해야 zoom 회의로 나누는 지경이 됐다. 이제는 강의권 회견 심지어 선거 캠페인마저 저만치 떨어져서 눈과 귀로만 나누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옛날부터 그래 왔던 것만 같고 앞으로도 상당 시간 그러려니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이면 못내 아쉽다. 예수를 흘쩍 남기기까지 기억에 가물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설날은 유별나게 설레었다. 떡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야 그나마 배불리 먹던 즐거움도 있었겠고, 이날을 맞이하기 위해 타지로 나갔던 온 가족이 다 모여 정을 나누고 그래서 더욱 기뻐할 때문이라. 힘들고 고단했던 누구라도 이날만큼은 모여 앉아 도란거려던 기억이 우리의 디엔에이(DNA).

추석과 더불어 쌍벽의 명절이지만, 그래도 새해의 각오와 타이름이 있고, 추운 겨울 돌 틈 속 개구리 같은 삶에 서로서로 보살피지는 세뱃돈도 있었다. 그래서 설은 까치근 아이건 노인언건 들뜨는 날이다. 들뜨기

문배주 한 병 사들고

는 나라 전체가 한결같아서 연말연시부터 설까지는 나라 재정이나 정치도 너그러이 돌아갔다.

대통령께서도 이날에는 늘 명절 선물을 보내곤 하신다. 올해에도 방역과 예방에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하여 나라와 이웃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문배주와 오미자청, 매실액과 밤 등을 선물로 보내신 모양이다. 크게 비싸지는 않아도 각자의 특산물을 조금씩 넣어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임기 중 마지막 정성인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두 받지는 못했을망정 누구라도 기사만 보고도 미소가 떠올랐을 것이다. 정확한는 모르겠으나 일반오천 개뿐이라는 말이 있으니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각별할 터이다.

그런데 이 각별한 정성을 단호히 거부한 이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주한 일본국특명전권대사 아이보시 코이치(相模孝一)이다. 그는 이번으로 세 번째 한국 근무를 하는 노련한 외교관이다. 작년 초 부임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한-일한미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비교적 간결한 부임사이지만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더욱이 올해 신년사에서는, 한일축제한마당이나 한일경제인회의 등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경제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으며, 동일 본대지진 10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어서, ‘양국의 인적 교류가 조기에 재개’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가진 분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한데 그런 분이 상자 표지에 그려진 그림이 독도로 보인다. 트집을 잡아, 우리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이 분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통령이 이 선물에 담았을만한 소통과 화합의 인간적 마음을 읽기는커녕, 마치 대통령이 이번 설 선물에 독도를 그려 보내 일본을 폄하하는 선동이라도 한 것으로 읽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는 지나친 소아적 자기편향성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해 뜨는 희망’으로서의 새해 아침 독도는, 일본 국민들에게 태평양에 떠오르는 ‘아사히’와도 같은 상징적 존재이다. 또 설사 그것이 일본에 대한 지적처럼 느껴졌더라도 대사는 분이 마치 절없는 일본 극우처럼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따지고 보면 이 분이 부임한 이래,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模弘尚) 총괄공사가 공개적인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저질 모욕 발언을 내뱉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의례적 징계에 그치는 조치만 있었다. 우리는 구한말 우리의 국권을 문란케 하고 왕후를 사해하는 데 깊이 간여하였다고 평가되는 일본공사관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너그러이 함께하되, 언제까지나 기억될 일.

분명 온 세상은 전환의 시대에 놓였다. 코로나, 기술 변화, 기후 위기, 신자유주의의 몰락, 미중의 패권 갈등 등. 한일이 과거를 반성하며 서로 도와야 할 때에, 한국 국민을 넘어 일본 국민조차 환영하지 못할 몰시대적 무례를 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며, 설 설 술로 문배주 한 병 사 든다.

기고



조정규
무안군 철도공항팀장

무안국제공항 재도약의 원년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9년에는 연간 이용객 90만 명으로 전국 공항 중 이용객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듬해에는 100만 명, 200만 명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 전망과 함께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도 잠시였다. 2020년 3월 들어서는 8개국 15개 노선이던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방역 조치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소형 항공사인 국내선 두 편만이 유지되고 있다.

특자는 인접한 광주공항, 여수공항과 비교하면서 두 곳은 이용객이 대폭 늘어났는데 무안국제공항만 이용객이 줄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을 국내 공항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방역 조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접한 광주공항, 여수공항과 비교하면서 두 곳은 이용객이 대폭 늘어났는데 무안국제공항만 이용객이 줄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을 국내 공항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방역 조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접한 광주공항, 여수공항과 비교하면서 두 곳은 이용객이 대폭 늘어났는데 무안국제공항만 이용객이 줄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을 국내 공항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국제공항들의 이용객 실적을 보면 무안·청주·양양 공항은 2021년 들어 국제선이 없는 상황이고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 공항도 2020년부터 매년 70% 이상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단순히 방역 조치 이전인 2019년도와 작년말 이용객을 비교해 보면 인천공항도 국제선 이용객이 4.5%에 불과하고 다른 국제공항들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방역 조치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약으로 국내 수요만 증가하고 국제 여객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는 여러 상황이 갈수록 무안국제공항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 같지만 모든 여건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7일 무안국제공항 진입 도로 구간인 지방도 815호선 8.12km를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2026년 KTX노선이 개통되면 무안국제공항은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접근성이 뛰어난 공항이 된다.

2023년까지 공항 활주로를 360m 연장해 전체 길이가 3160m 되면 대형 E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항공기의 공항 이용도가 증가하고 지금까지 부진했던 항공화물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무안군은 항공 정비 산업 유치를 위해 공항과 연결한 35만㎡의 부지에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항공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항공기를 운항 하면서 유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공항을 단지 여객운송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남도와 무안군은 방역 지침이 완화되는 대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국제선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및 항공사와 함께 운항 일정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올해는 2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무안국제공항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오성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제2의 고향

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주 한 달 살아가 보기 같이 아예 초록내가 물씬 나는 곳을 찾아가 지내기도 하고, 도시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실내를 반려 식물로 채우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반농반도시(半農半都)의 삶을 실천하기도 한다. 평일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다가 주말은 농촌에서 휴를 만지며 사는 것이다. 그만큼 초록이 고온 요즘이며, 새롭게 정 들 ‘제2의 고향’을 찾는 노력들의 증거가 아닐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 주

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부자는 지역 특산물로 이루어진 답례품과 함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외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혜택도 주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귀농 또는 귀촌을 생각하고 있다. 이번 농협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쓴 미래의 자서전에서도 농협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을 봐도 이런 분위기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주류가 된 느낌이다.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돌아갈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전 도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는 주소지 외 어느 곳에 기부를 해야 할지 오히려 기부지 선택에 고민이 생기기 않을까?

기부를 해서 세제 혜택은 물론 답례품도 받고 아울러 그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혜택까지 준다면 기부자 입장에서는 일석삼조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잠재적인 주민을 얻을 수 있으며, 상호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고향’이 그리운 시기다. 기왕 시작될 제도에 귀농·귀촌 지원이라는 손가락 하나 더 없었으면 한다.

社說

문화전당장만큼은 제발 전문성 갖춘 인사로

절차를 무시한 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초대 이사장·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지난 6년 동안 표류해 온 아시아문화전당의 초대 전당장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이번만큼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불통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전당장 공모를 다섯 차례나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선임하지 못한 채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 왔다. 더욱이 조직마저 이원화되어 정당한 운영조차 힘든 구조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이 추진됐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전당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와 창조·교육·교류 등을 총지휘할 문화전당장의 선임이다. 이는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과 사업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당초 전당장 인사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임용후보자 세 명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면서 12월 말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사업을 전담할 전당재단의 이사장·사장 등 경영진 임명이 먼저 이뤄지고 전당장 인사는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또다시 영타인 인사가 반복되면서 리더십 부재로 문화전당 정상화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문화발전소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당재단 경영진 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당장만큼은 제발 지역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

서류에만 있는 ‘안전’ 현장선 아예 무시됐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감리업무수행계획서가 공개됐다. 이들 서류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정을 어떻게 관리·감독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타당 계획과 실제 현장의 조치는 완전히 달랐다. 대충대충 시공과 무책임한 관리 감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계획 따로 현장 따로’의 구조적 비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 갑) 의원이 최근 서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이들 계획서에는 시설물별로 시공사 측이 취하겠다는 안전계획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특히 이번 붕괴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타설 계획뿐 아니라 강구조물 공사, 건축설비 공사 계획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와 점검 계획도 적시됐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시공사 측은 콘크리트 타설 계획으로 ‘저온일 때 콘크리트 타설을 피한다’고 명시했지만 붕괴 사고 당일 영하의 날씨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안전계획서는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현장에 확인조차 없었다.

특히 감리업무수행계획서에는 설계 규정에 적합한 지반을 검증해 결과에 따라 불합격 시 재시공 보완토록 하는 검증 절차가 제시돼 있지만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광주 서구에서 지난해 3월 해방길 안전점검을 통해 1단지 동바리 지지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은 서류상에만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안전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1~2cm만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無等鼓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생소한 한국 문화와 행동양식이 있다. 우선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인데 서양기준으로 따지면 0살이다. 산후 조리를 하는 산모(産母)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문화도 이채롭다. 우리는 처음 만난 이도 나이를 물어 형인지, 동생인지를 따진다. 아마도 유교 전통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묻는 것은 결례이다.

동·서양간에 바다 랭귀지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무심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는 최근 펴낸 K-컬처 가이드북 ‘Land of Squid Game’ (오징어게임이 탄생한 나라)에서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돌보고자 하는 ‘인정’의 마음이 우리나라와 행동한 것”이라며 “정(情)은 한국문화에서 모든 관계의 핵심을 이룬다”고 강조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연출 황동혁)에서도 ‘깡부’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와 게임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깡두기’를 통해 한국문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다. 요즘 한국에서 제작된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TS를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번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해외의 인기를 실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강국론’을 주창한 백범 김구 선생의 바람이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채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